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3.02.15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뉴질랜드, '호라이즌 유럽 분담금은 상한선 없는 총량제 방식'

- 뉴질랜드는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자국 연구자들이 얻은 그랜트 금액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, 집행위와 뉴질랜드 정부 모두 분담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음
- 뉴질랜드 관계자는 자국 연구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그랜트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해결 방법 옵션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, 확정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을 거부함
- 한편, EU 내부관계자는 '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분담금이 급증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연구기관에 비공식적으로 호라이즌 신청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
- 뉴질랜드 측은 HE 필라2에 대한 참여율이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를 희망하며, 필라2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이 추후 유럽연구위원회(ERC)등 HE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

○ 한-EU, 제5차 에너지·환경·기후 워킹그룹 회의 개최(1.30)

- 양측은 잠재적인 '한-EU 그린 파트너십'을 포함하여 에너지, 환경, 기후변화 등 세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
- EU 측은 집행위의 기후행동, 에너지 및 환경 총국 대표와 유럽 대외정책국의 부국장이 참여하였으며, 한국 측은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이 참여

※ 차기 회의는 '24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

○ 유럽 연구 장관, 디지털 전환 및 학술 출판의 연구 인프라 논의(2.8)

- 연구 장관들은 스톡홀름 비공식 회의에서 스웨덴 의장국의 주도하에 디지털 전환에서의 연구 인프라 및 공평한 학술 출판 강화에 대해 논의함
- 스웨덴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Lund에서 연구 인프라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조직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Lund 선언을 발표할 예정
- 또한 EU이사회는 오는 5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경쟁력 위원회에서 '학술 출판'에 관련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할 계획